

01 교회소식

영혼을 살피우는 양서(良書)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이 변화되는 지름길로 인도한다.

02 생명의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 시리즈

자신의 죄악을 발견해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성결한 마음을 이루는 만큼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에블라가 종식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사랑을 체험한 콩고민주공화국 김사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광고 장로의 간증.

04 간증

“치료의 주님을 널리 전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고 회복되는가 하면 갑상샘 질환과 부정맥을 치료받는 등 권능의 역사를 체험한 국내외 성도들.

만민뉴스

제976호 2022년 9월 1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니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교역자회 주관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 진행

독서의 계절을 맞아 우리 교회는 ‘전 성도 영적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회장 저서 읽기’를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진행하고 있다.

교역자회에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중에서 『주님의 자취』(상, 하), 『젓과 꿀이 흐르는 땅』,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 『일곱 교회』, 『네 영혼이 잘됨같이』, 『공부 잘하는 비결』 총 7권을 선정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요한복음 강해집인 『주님의 자취』(상, 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영생의 비밀과 축복의 지름길을 제시해주며,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미세한 일들이 삶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 깨닫게 해 준다. 『거역된 삶과 순종의 삶』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열 재앙 사건을 통해 삶 가운데 생기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 해결점을 찾게 한다.

『일곱 교회』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 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며, 『네 영혼이 잘됨같이』는 참민음을 소유하여 만사형통한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공부 잘하는 비결』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공부 비결을 터득함은 물론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데 지침이 된다.

‘당회장님 저서 읽기’ 행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 하), 『지옥』,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나의 택한 아굽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 언약의 통로 요셉』,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등 총 16권이 선정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었다.

이로써 성도들은 신앙의 근간이 되며 참된 신앙의 길과 축복의 비결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영적 성장은 물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등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린 바 있다.

윤금옥 집사(76세, 중국 2교구)는 당회장님 저서를 읽으며 하나님 뜻을 깨우쳐 믿음으로 행한 결과 만성위축성 위염과 과증식성 용종을 수술하지 않고도 깨끗이 치료받았으며, 김문자 집사(73세, 순천 만민성결교회)는 퇴행성관절염과 무릎 뒤 주먹만 한 크기의 물혹이 사라졌다.

문상현 집사(58세, 1대대 4교구)는 망막 손상으로 색으로만 구분됐던 글씨가 시력이 호전돼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곽영심 집사(82세, 1대대 1교구)는 한글을 깨우치는 은혜가 임했으며, 최순덕 집사(64세, 1대대 6교구)는 12년 동안 안 되던 집 매매가 이뤄지는 등 많은 성도의 치료와 응답, 축복받은 간증이 이어졌다.

포토뉴스

지난 8월 21일 주일 저녁예배는 하나님 앞에 ‘2022년 임직예배’로 드려졌다. 예수교연합성결회 부총회장 이수진 목사는 1부 예배 때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삶’(눅 13:31~33)이라는 설교에 이어 2부 부목사 취임식을 집례하였다. 3부는 이정호 원로장로의 축사, 황금란 목사의 답사, 서승원 집사의 축가, 취임패 수여,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성결의 지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7~18)

사람마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재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잠언 3장 13~17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귀히 여기며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이라도 그것이 참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지혜는 누가 훔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얼마큼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측량할 수 없이 커 집니다. 그래서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했고, 3장 18~20절에는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나 미련한 자가 되거나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악하고 간교한 꾀도 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꾀를 써서 얻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수 없으니 많은 것을 얻었다 해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행통하며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 '위로부터 난 지혜'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했는데,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

본이요...” 했고, 16장 6절에는 “...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길입니다. 선과 사랑,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고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지요.

이에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율법사는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테니까?”라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제사장은 보고 피해 지나가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었다면 네 의견에는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이방 민족과 혼혈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율법사는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라고 대답하시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사에게 이웃 사랑이 없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깨우칠 수 있도록 비유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선이 부족한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을 만나면 상대를 찌르기도 하고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찌르지 않더라도 상대의 악한 의도를 눈치채고 비꼬는 말로 되갚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요, 위로부터 난 선의 지혜인 것입니다.

2. 성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의 지혜

하나님께서 빛이시며 선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빛 가운데 거하며 성결한 만큼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고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받는 것과 흡사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주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악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이듯이 지혜를 받을 때도 마음에 선이 있는 만큼 더 섬세하고 깊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지혜는 항상 선한 방법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누군가 선한 지혜를 알려 준다고 해도 그 방법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를 받고 지혜가 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선한 표현을 씁니다. 곱고 은혜로운 말, 누가 들어도 덕스러운 말을 하지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게 할 만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나 기도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악이 있으면 은연중에 악이 배어 나오지요. 반대로 마음이 선하면 자연스럽게 선한 기도, 선한 말만 나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나 말로 인해 주변의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 도리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거나 비방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는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 입장을 변명하면 할수록 잘못된 인식만 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변론하여 억울함은 밝혀낸다고 해도 그 과정에 타인의 허물이 드러날 수도 있지요.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해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table border="1"> <tr> <td>주일 대예배</td> <td>1부 10:00 AM 2부 11:30 AM</td> </tr> <tr> <td>주일 저녁예배</td> <td>3: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td> <td>9:00 PM</td> </tr> <tr> <td>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td> <td>11:00 PM</td> </tr> <tr> <td>금요일아예배</td> <td>11:00 PM</td> </tr> <tr> <td>수요일예배</td> <td>7:00 PM</td> </tr> <tr> <td>화요일찬양예배 [청년·가나안]</td> <td>8:30 PM</td> </tr> <tr> <td>수요일찬양예배 [빛과소금]</td> <td>9:00 PM</td> </tr> <tr> <td>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td> <td>4:00 PM</td> </tr> </table>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p>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일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일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URIM BOOKS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합니다. 상대방에서는 자기 잘못이 드러나니 더욱 감정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아” 했습니다. 변론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화평이 깨져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따라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절대 변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잠잠하고 상대를 풀어주면 진실이 전해져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지요.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상대의 마음이 녹아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뭔가 깨우쳐 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을 바꿔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면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잠 3:6).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면 자신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가 되면 친히 갚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난 성결의 지혜입니다.

3. 선이 없는 지혜는 헛된 지혜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배운다고 해도 마음에 악이 있으면 내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다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지요.

그러니 악을 버리고 성결 될 때라야 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악이 있을 때 평소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그러합니다.

예를 들어 선하고 감동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악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 속에 묻어옵니다.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으면 “선하게 기도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할 줄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해도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차 있으니 감사의 표현이 나오지 않지요. 믿음 없는 부정적인 기도, 남의 탓을 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지, 하나님을 서운케 하고 응답받지 못할 기도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선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약 5:16).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하고(삼하 14:25) 지혜도 뛰어났지만, 마음이 악해 자신의 지혜를 악한 데 사용했습니다. 이복 만형인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한 일로 분개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잘못에 대해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 불만이었지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선불리 드러내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2년 뒤, 양털 깎는 행사에 암논을 초대해 부하들을 통해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피해 멀리 달아나지요. 시간이 흐르고 이 일로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헤아린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후로도 2년 동안이나 그를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을 알고는 앙심을 품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심복 무사들을 키우고 무기와 병거를 마련하며 반란을 일으킬 친

위부대를 양성하지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묘하게 백성을 포섭해 민심을 얻고 신뢰를 쌓아갔습니다(삼하 15:2~6).

마침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 다윗은 황망히 쫓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수하에 있는 모사 아히도벨까지 자기편으로 만듭니다.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어떤 모략을 베풀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일반이라 할 정도였습니다(삼하 16:23).

그러나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단번에 다윗을 제압할 작전을 내놓았지만, 압살롬은 다윗에게 유리한 작전을 제안한 후사의 말을 들었지요. 지혜로운 압살롬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니 멸망의 길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성결한 지혜가 아니라면 물거품처럼 헛된 것임을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며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선한 방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도, 깨달은 대로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먼저는 마음의 성결을 이뤄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성결의 지혜를 구해 범사에 행통하며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획특집

“권능의 기도로 에볼라가 종식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31일, 주일 저녁예배 때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임페토 팡고 장로의 간증 설교가 있었다. 2022년 만민하게수련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그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 ; 히 11:6)는 말씀의 제목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가 종식된 사건을 간증했다.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퇴르 주의 주지사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주도 음반다까 시에서 약 800킬로미터 떨어진 보엔데 시 제라 지역에서 에볼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해 확산하는 과정에서 매일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지요. 정부에서는 보엔데, 음반다까, 킨샤사 세 팀으로 나눠 매일 질병 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음반다까 시를 담당했지요. 날마다 감염자 수가 증가하니 급기야 감염자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제게 전화해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라도 주도 음반다까 시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퇴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음반다까 시에서 수도 킨샤사까지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에 음반다까 시가 뚫리면 킨

샤사가 뚫려 전 세계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이 고립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일은 제게 매우 큰 부담이었고, 큰 도전이었지요. 마치 전 국민의 희망이 제 양 어깨에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마음의 짐을 안고 저는 담임 목사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서신을 보내게 되었고, 당회장님께서 서신을 보시고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날로부터 15일 동안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염된 환자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께 서는 유엔총회에서 콩고민주공화국에 에볼라가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셨지요. 할렐루야!

세바스찬 장로는 동료로부터 건네받은 이재록 목사의 간증 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은 후 하나님을 만나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받고 세계적인 부흥강사가 된 이재록 목사의 간증에 크게 감동해 킨샤사 만민교회 성도가 되었다.

2009년 교회 등록 당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 보좌관이었던 그는 2011년에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은 뒤 에콰퇴르 주의 주도인 음반다까 시의 시장이 되었고, 2013년에는 에콰퇴르 주의 부주사가 되었다. 그 뒤 주지사의 신병 치료로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주지사로 승진하였는데, 2014년 8월에 에볼라가 발생한 것이다.

그해 9월 16일, 세바스찬 장로가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기도 요청 메일을 본교회에 보내와 21일,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줌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에볼라가 종식되었다.





캐샤 성도 (30세,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저의 어머니(50세, 넬와티)는 5년 전 뇌출혈이 온 뒤 건강이 악화돼 2022년 3월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에는 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고, 살아도 하루 이틀 더 사실 수 있으니 집으로 모셔가서 남은 시간 잘 모시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는 없었기에 어머니가 기도 받을 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환자 기도'를 검색했지요.

사실 저희는 힌두교 가정이었는데, 몇 달 전에 친구의 전도로 주변 교회에 가끔 나가고 있었습니다.

“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어머니가 기도 받은 뒤 의식이 돌아와 회복하고 계십니다
”

유튜브에서 'GCNTV HINDI' 채널 '환자 기도'를 발견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상태가 호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기뻐던지요.

채널 운영자인 텔리 만민교회에 전화해 어머니의 상태를 말하니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의식이 없는 어머니를 위해 가족들이 대신 회개해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구원의 섭리가 담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십자가의 도'를 들으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알고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이에 온 가족이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회개하는 기도를 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그 뒤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다시 받았는데,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고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어 소변 주머니도 제거하였지요.

8월 1일 아침에는 만민하게수련회 교육 시 은사 집회를 준비하며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사 집회 때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시지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참된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박향순 집사 (79세, 2대대 14교구)

2020년 2월부터 몸이 나른하고 자주 피곤했습니다. 일하다가도 누워서 쉬었다가 다시 일해야 했고, 부정맥으로 인해 체중도 늘어났지요. 건강에 이상을 느껴 2022년 4월 20일 병원 검진을 받았습니니다. 그런데 갑상샘암 양성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뜻밖의 결과에 어안이 병병했지요.

담담 의사 선생님은 갑상샘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갑상샘 전문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역시 갑상샘암 양성 반응을 보였지요. 이에 병원에서는 6월 23일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 검진받을 수 있도록 예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 뒤에 열리는 은사 집회를 통해 주님께 치료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였지요. 성경을 2독하고 한 번 필사했으며, 당회장님의 설교 '사랑장', '믿음의 분량'을 필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월 27일, GCN방송을 통해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시작할 때부터 은혜와 감동이 임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전체 환자를 위해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신 뒤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2년 전부터 부정맥으로 인해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는데, 이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주일 전부터 왼쪽 팔목에 피부 과사가 있었는데, 기도 받은 후 과사가 멈췄고 새살이 돋았지요.



5월 31일,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님께서 인도하시는 '교구 성령 충만 기도회' 때에는 회개의 은혜가 크게 임해 통회자복을 하였고, 그 뒤로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저는 갑상샘 전문병원에서 연결해 준 병원의 예약 날짜가 되어 조직 검사를 받았습니니다. 29일,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으로 정상 소견이 나왔지요.

8월 1일, 만민하게수련회 교육 시 은사 집회 때 기도 받은 뒤에는 4년 전 허리 수술 후 무릎 통증으로 계단은 아예 오르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거나 뛰지도 못했는데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도 가볍고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이처럼 놀랍게 치료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체험함으로 미지근했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방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